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 행태에 관한 연구

Behavioral Analysis of Revisiting Tourism for Chung Nam Dae Sightseeing Site

이현재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Hyun-Jae Rhee(hyunrhee@cju.ac.kr)

요약

본 연구는 고유한 특성이 강해 초기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관광지인 청남대를 대상으로 재방문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분석기법으로는 다변량 통계분석인 시차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 행태를 입장료나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하였다.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 의도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기분석과는 달리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권 및 충북지역의 재방문 관광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남대 재방문 의도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입장료에 의한 영향은 초기 방문을 통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의한 영향은 시차가 길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남대 재방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남대 입장료의 요금체계 개선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시설 확충, 이미지 제고, 서비스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잠재된 관광지 가치의 개발이나 주변의 유사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청남대 | 재방문 의도 | 시차변수모형 |

Abstract

The research is basically designed to reveal a revisiting behavior for Chung Nam Dae which is inherently characterized sightseeing site. Distributional lag model is tentatively employed to analyze economic factors such as entrance fee and a different level of income. Empirical findings investigate that the revisiting behavior that is associated with a long run effect is more closely connected to the level of national income, but not the level of incomes in Chung Cheong region and Chung Buk province as well. As far as revisiting intention concerns, the entrance fee tends to affect to it by a shorter distributional lag, but the level of income affects to it by way of a pretty much longer distributional lags. To this end, perceived value for Chung Nam Dae should be exposed in order to induce a re-visitor. Such a goal could be attainable by taking care of its system for entrance fee, expanding facilities, re-branding, service improvement, and developing useful programs. Also, setting up an inter-connected networking system with a sightseeing site around is highly recommended.

■ keyword : | Chung Nam Dae | Revisit Intension | Distributional Lag Model |

I. 서론

관광객이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요인은 관광객의 사적인 경험에 의한 개인적 선호도나 소득수준 등에 따른 주관적 기준과 관광지 자체가 갖는 매력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관광지의 매력도는 관광지의 인지도, 브랜드 가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1]. 따라서 관광만족도의 수준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며, 또한 관광객은 이를 바탕으로 초기 방문 관광지에 대한 재방문 의도도 결정하게 된다. 관광자원은 일회성 방문 보다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은 초기 방문 이후 재방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관광지가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자체가 갖는 매력 속성뿐만 아니라 요금체계, 잠재된 관광지 가치의 개발 및 유사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2].

청남대는 2003년 4월부터 유료관광객을 수용하기 시작한 이후 초기에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10월까지 누적 관광객 5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남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고유성이 강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초기 방문 이후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급격하게 체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체성이나 보완성이 쉽지 않은 대통령 관련 시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 전환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 방문이나 단체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남대가 지속가능한 관광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 관광기능을 제고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관광객의 선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오늘 날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이와 같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초기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인하기 어려운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 의도를 입장료와 소득수준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지로서의 청남대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선행연구

관광지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신현호[3]는 관광 라이프스타일이 관광지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런 기준이 관광지의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임병훈 외[1]는 관광객의 개성 및 속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평가 체계에 의한 관광지 선택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김원인[2]은 관광지 자체의 매력속성이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관광지의 공간환경이 관광지의 가치와 매력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관광지의 재방문 의도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조태영·서태양[4]과 조태영[5]은 전래문화 유산이 보존된 문화관광지인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떠한 문화관광 체험요인이 관광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광만족의 후속태도인 행동의도 즉,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문화관광 체험의 교육성과 일탈감 요인은 관광만족에 양(+)으로 작용하고, 또한 행동의도에도 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이연주·서원석[6]은 지자체가 보유한 관광자원 브랜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관광자원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재방문과 타인 추천의사 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광자원 브랜드 구축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손병모[7]는 강원도 동해안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자각된 가치가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속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품질과 접근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재방문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류시영·엄서호[8]는 관광만족과 재방문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변화된 태도의 매개효과가 관광 만족도보다 재방문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윤섭[9]은 관광지 매력속성의 만

족도와 재방문 의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만족도와 매력속성이 재방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윤준·임근욱[10]은 관광이미지를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하고 제주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마케팅 믹스와 관광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박영기·윤지환[11]은 단양지역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장현·권중현[12]은 유럽관광지에 대한 매력속성의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을 평가하여 재방문 의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관광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는 관광자체 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험, 문화적 가치 및 역사적 가치 등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관광지의 가치평가 및 재방문 의도와 관련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Dumitru et al., Ciopi, and Cuccia and Cellini[13-15]는 청남대와 같이 고유한 특성을 갖는 문화유적지에서의 관광객 유치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관광지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독립 관광보다는 연계 관광을 활용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와 재방문 의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udan[16]도 소규모 문화유적지에서 재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uzzier와 Konecnik and Ruzzier[17][18]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하거나 재방문을 결정할 때 관광지의 브랜드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Konecnik and Ruzzier[18]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결정하는 4가지 요인으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였다. 즉, 결정요인을 목적지의 평판도, 이미지, 잠재적인 품질 및 충성도 등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관광지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deb and Rudez, Staden and Marais 및 Oertel et al.[19-21]은 관광목적지와 재방문을 결정하는 잠재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과거와는 달리 관광운용시스템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관광목

적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양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따라서 관광정보를 집약화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Gorica, Kripa, and Luci[22]는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방안과 관광객이 목적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관광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지의 매력속성에 의한 가치평가 체계를 논의하고, 전래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한 안동 하회마을이나 문화유적지와 같이 고유한 특성을 갖는 관광지의 재방문 행태를 분석하였지만 관광지 방문객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초기 관광객의 재방문 행태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III. 모형의 설정

경제적인 측면에서 청남대 관광객의 초기 및 재방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1)식부터 (4)식까지의 시차변수모형(distributional lag model)을 활용할 수 있다[22].

$$CNDQ_t = f_1(PR_t, PR_{t-1}, \dots, PR_{t-k}) \quad (1)$$

$$CNDQ_t = f_2(NY_t, NY_{t-1}, \dots, NY_{t-k}) \quad (2)$$

$$CNDQ_t = f_3(CCY_t, CCY_{t-1}, \dots, CCY_{t-k}) \quad (3)$$

$$CNDQ_t = f_4(CBY_t, CBY_{t-1}, \dots, CBY_{t-k}) \quad (4)$$

시차변수모형을 적용하면 (t)기의 청남대 관광객 수는 초기 방문으로, 시차에 의한 (t-k)기의 청남대 관광객 수는 재방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광객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CNDQ_t$ 는 청남대 관광객 수를, PR_t 는 청남대 입장료를, NY_t 는 국내 실질GDP를, CCY_t 는 충청권(충남, 대전광역시 및 충북)의 실질지역내총생산을, CBY_t 는 충북지역의 실질지역내총생산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t-k)는 시차변수를 의미한다.

(1)식부터 (4)식까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을 설정하면 다음의 (5)식부터 (8)식과 같다.

$$\ln \text{CNDQ}_t = \beta_{10} + \beta_{11} \ln PR_t + \beta_{12} \ln PR_{t-1} + \dots + \beta_{1k} \ln PR_{t-k} + \epsilon_1 \quad (5)$$

$$\ln \text{CNDQ}_t = \beta_{20} + \beta_{21} \ln NY_t + \beta_{22} \ln NY_{t-1} + \dots + \beta_{2k} \ln NY_{t-k} + \epsilon_2 \quad (6)$$

$$\ln \text{CNDQ}_t = \beta_{30} + \beta_{31} \ln CCY_t + \beta_{32} \ln CCY_{t-1} + \dots + \beta_{3k} \ln CCY_{t-k} + \epsilon_3 \quad (7)$$

$$\ln \text{CNDQ}_t = \beta_{40} + \beta_{41} \ln CBY_t + \beta_{42} \ln CBY_{t-1} + \dots + \beta_{4k} \ln CBY_{t-k} + \epsilon_4 \quad (8)$$

위의 추정방정식에서 (5)식으로는 청남대 입장료의 각 시차변수가 청남대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6)-(8)식으로는 전국, 충청지역 및 충북지역 소득수준의 각 시차변수가 청남대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즉, (6)식으로는 전국 소득수준을, (7)식으로는 충청지역 소득수준을, 그리고 (8)식으로는 충북지역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각각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차변수모형에 의해 추정된 각 추정계수로부터 각각의 설명변수가 청남대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9)식, (10)식 및 (11)식을 활용할 수 있다.

$$\text{단기효과: } \beta_{ik} \quad (i=1, 2, 3, 4, \text{ 그리고 } k=1, 2, \dots, 6) \quad (9)$$

$$\text{장기효과: } \beta = \sum (\beta_{i1} + \dots + \beta_{ik}) \quad (10)$$

$$\text{장기효과에 미치는 영향: } \omega_{ik} = \frac{\beta_{ik}}{\beta} \quad (11)$$

IV. 분석결과

1. 현황분석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청남대의 연도별 및 월별 관광객 수와 연도별 관광수입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연도별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의 경우 유료개방 초기인 2004년에 급증한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월별 관광객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봄철(4월, 5월 및 6월)과 가을철(10월, 11월)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어서 겨울철(1월, 2월 및 12월)과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현황분석을 위한 연도별 및 월별 청남대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등에 관한 자료는 청남대를 개방하고 유료화한 이후인 2003년 3/4분기부

터 2012년 2/4분기까지의 기간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청남대관리사무소이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EViews 7의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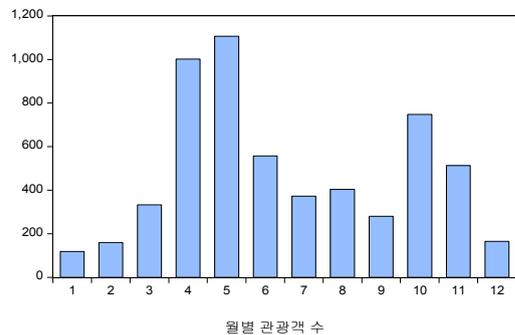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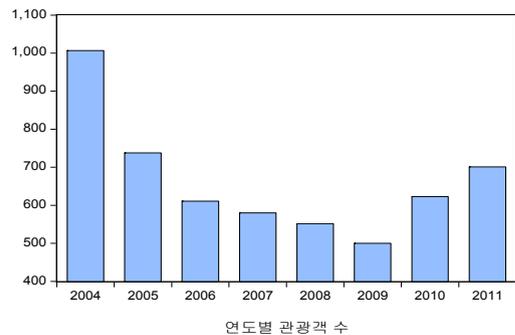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및 월별 관광객 수 추이[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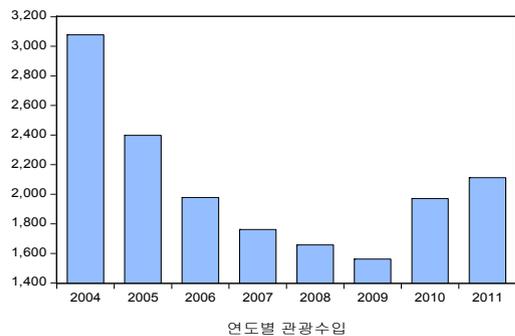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관광수입 추이[23]

2. 계절조정

계절에 따라 관광객이 집중되는 관광지와 유사하게 청남대의 관광객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의 분기별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에 의한 계절조정을 수행하였다. [표 1]은 분기별 계절조정인자의 산정결과인데 [표 1]에 의하면 분기별 관광객 수(CNDQ_t)와 분기별 관광수입(REVQ_t)의 계절조정인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분기별 관광객 수의 경우 계절조정인자는 1분기에 0.500부터 2분기에 1.981까지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분기별 관광수입의 경우는 1분기에 0.477부터 2분기에 1.860까지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실질GDP(NRY_t), 대전광역시 실질지역내총생산(DJY_t), 충남 실질지역내총생산(CNY_t) 및 충북 실질지역내총생산(CBY_t)의 경우는 계절조정인자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남대 입장료(PR_t)는 관광수입(REVQ_t)을 관광객 수(CNDQ_t)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청남대 입장료도 계절조정인자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분기별 계절조정인자

변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CNDQ _t	0.500	1.981	0.887	1.266
REVQ _t	0.477	1.860	0.911	1.236
NRY _t	0.948	1.011	1.000	1.044
DJY _t	1.000	1.000	1.000	0.999
CNY _t	1.000	1.000	1.000	1.000
CBY _t	1.000	1.000	1.000	1.000

3. 변수의 통계적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할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는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및 Jarque-Bera 통계량을 각각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통계적 특징은 주로 왜도, 첨도 및 Jarque-Bera 통계량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왜도는 통계분포의 대칭성(symmetry)을 나타내는데 왜도가 0(zero)이면 완전한 대칭분포를, 양(+)의 값이면 오른쪽으로 긴 꼬리(right-skewed)를, 음(-)의 값이면 왼쪽으로 긴 꼬리

(left-skewed)를 각각 의미한다. 따라서 PR_t 변수와 NRY_t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의 통계분포임을 알 수 있다.

첨도는 통계분포 꼬리의 두꺼운(fat tail) 정도를 나타내는데 변수의 통계분포가 정규분포이면 3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3보다 크면 첨예분포(leptokurtic)로, 작으면 평탄분포(platykurtic)로 각각 구분된다. 따라서 CNDQ_t 변수는 첨예분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변수의 정규분포 가능성은 Jarque-Bera 통계량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정규분포를 검정하기 위한 귀무가설의 기각여부는 $\chi^2_{(2)}$ 검정을 따른다. 즉, Jarque-Bera 통계량이 $\chi^2_{(2)}=5.99$ 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CNDQ_t 변수는 정규분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4][25].

표 2.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J-B
CNDQ _t	150,960.7	55831.4	2.24	8.09	68.9
PR _t	3.19	0.18	-0.60	2.45	2.64
NRY _t	238,824.3	22,996.5	-0.02	1.87	1.91
CCY _t	111,000.0	20,484.5	0.49	2.27	2.21
CBY _t	29,888.4	3,761.0	0.70	2.54	3.22

주: J-B는 Jarque-Bera 통계량을 나타냄.

4. 시차의 선정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시차변수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시차의 선정은 최적시차, 시차(t)=4 (4분기, 즉 1년을 기준) 및 시차(t)=6 (6분기, 즉 1년 6개월)로 각각 설정하였다. 최적시차는 청남대 관광객이 재방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차를 통계적 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것이며, 시차(t)=4와 시차(t)=6은 임의적(ad hoc)인 기간에 따라 시차를 설정한 경우이다. 최적시차는 Akaike[26]가 제시한 최소 FPE(minimized final prediction error) 값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5)식은 최적시차가 (-1), (6)식은 최적시차가 (-2), 그리고 (7)식과 (8)식은 최적시차가 (-3)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5. 분석결과

시차변수모형에 의한 청남대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는 [표 3]부터 [표 5]까지인데 이 결과에 의하면 청남대 관광객은 최적시차, 시차(t)=4 및 시차(t)=6과 무관하게 단기 추정계수를 의미하는 시차(t)=0의 경우 입장료와 전국 실질GDP의 추정계수가 각각 음(-)으로 나타나 청남대 입장료가 높을수록, 또는 전국 실질GDP가 높을수록 단기적으로 청남대 관광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충청권과 충북지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높을수록 단기적으로 청남대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청남대 입장료

를 인하하면 관광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전국보다는 충청권 및 충북지역 관광객이 청남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북지역의 소득 수준보다는 충청권의 소득수준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시차변수에 따른 추정계수의 부호가 서로 교차하여 청남대 관광객이 입장료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방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방문을 선호하는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남대 관광객의 단기

표 3. 시차에 따른 청남대 관광객 분석: 최적시차

추정방정식	상수항	t=0	t=1	t=2	t=3	AR(1)
$\ln CNDQ_t = f_1[\ln PR_t]$	13.71 (17.3)*	-1.918 (-4.93)*	0.282 (0.72)	-	-	0.78 (9.65)*
	$\bar{R}^2=0.78$ F=40.16 DW=1.92					
$\ln CNDQ_t = f_2[\ln NY_t]$	9.145 (0.88)	-2.420 (-0.97)	-1.288 (-0.41)	3.927 (1.66)	-	0.55 (4.74)*
	$\bar{R}^2=0.42$ F=6.91 DW=2.30					
$\ln CNDQ_t = f_3[\ln CCY_t]$	21.99 (3.76)*	11.80 (1.23)	-24.44 (-1.43)	44.13 (2.59)*	-32.08 (-3.38)*	0.33 (1.76)
	$\bar{R}^2=0.47$ F=6.61 DW=1.94					
$\ln CNDQ_t = f_4[\ln CBY_t]$	13.14 (1.09)	2.700 (0.38)	-8.197 (-0.70)	19.08 (1.65)	-13.67 (-1.96)*	0.43 (2.56)*
	$\bar{R}^2=0.29$ F=3.57 DW=2.13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임.

표 4. 시차에 따른 청남대 관광객 분석: 시차=4

추정방정식	상수항	t=0	t=1	t=2	t=3	t=4	AR(1)
$\ln CNDQ_t = f_1[\ln PR_t]$	11.42 (3.77)*	-1.450 (-2.43)*	0.552 (0.82)	-0.367 (-0.63)	0.668 (0.93)	0.910 (1.32)	0.73 (5.19)*
	$\bar{R}^2=0.53$ F=6.59 DW=2.11						
$\ln CNDQ_t = f_2[\ln NY_t]$	7.547 (0.63)	-2.467 (-0.90)	-1.364 (-0.41)	5.668 (1.70)	-3.504 (-1.07)	2.014 (0.79)	0.57 (3.42)*
	$\bar{R}^2=0.17$ F=2.03 DW=2.28						
$\ln CNDQ_t = f_3[\ln CCY_t]$	19.76 (3.02)*	10.66 (1.08)	-23.02 (-1.31)	47.14 (2.66)*	-41.64 (-2.37)*	6.397 (0.66)	0.33 (1.69)
	$\bar{R}^2=0.41$ F=4.43 DW=1.92						
$\ln CNDQ_t = f_4[\ln CBY_t]$	12.67 (0.95)	2.444 (0.32)	-8.033 (-0.65)	18.84 (1.53)	-12.93 (-1.07)	-0.374 (-0.05)	0.41 (2.16)*
	$\bar{R}^2=0.17$ F=2.04 DW=2.10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임.

표 5. 시차에 따른 청남대 관광객 분석: 시차=6

추정방정식	상수항	t=0	t=1	t=2	t=3	t=4	t=5	t=6	AR(1)
$\ln \text{CNDQ}_t = f_1[\ln \text{PR}_t]$	10.41 (3.50)*	-1.200 (-1.73)	0.905 (1.28)	-0.553 (-0.87)	0.933 (1.10)	1.702 (1.72)	-0.074 (-0.10)	-0.550 (-0.76)	0.54 (2.31)*
	$\bar{R}^2=0.46$			F=4.02		DW=2.05			
$\ln \text{CNDQ}_t = f_2[\ln \text{NY}_t]$	5.825 (0.47)	-1.802 (-0.54)	-1.406 (-0.36)	5.858 (1.55)	-3.485 (-0.94)	3.691 (1.00)	-2.802 (-0.77)	0.428 (0.15)	0.51 (2.43)*
	$\bar{R}^2=0.03$			F=1.11		DW=2.19			
$\ln \text{CNDQ}_t = f_3[\ln \text{CCY}_t]$	21.31 (3.80)*	14.35 (1.27)	-27.29 (-1.21)	44.42 (2.03)*	-46.37 (-2.18)*	18.12 (0.84)	10.04 (0.49)	-13.82 (-1.34)	0.08 (0.35)
	$\bar{R}^2=0.36$			F=2.99		DW=1.92			
$\ln \text{CNDQ}_t = f_4[\ln \text{CBY}_t]$	25.13 (1.64)	7.75 (0.70)	-10.31 (-0.52)	13.74 (0.86)	-15.55 (-1.07)	6.706 (0.45)	8.385 (0.56)	-11.51 (-1.40)	0.18 (0.79)
	$\bar{R}^2=0.10$			F=1.40		DW=1.96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임.

표 6. 청남대 관광객의 단기 및 장기효과

추정방정식	단기효과			장기효과		
	최적시차	t=4	t=6	최적시차	t=4	t=6
$\ln \text{CNDQ}_t = f_1[\ln \text{PR}_t]$	-1.918	-1.450	-1.200	-1.636	0.313	1.163
$\ln \text{CNDQ}_t = f_2[\ln \text{NY}_t]$	-2.420	-2.467	-1.802	0.219	0.348	0.482
$\ln \text{CNDQ}_t = f_3[\ln \text{CCY}_t]$	11.80	10.66	14.35	-0.581	-0.456	-0.549
$\ln \text{CNDQ}_t = f_4[\ln \text{CBY}_t]$	2.700	2.444	7.748	-0.085	-0.058	-0.795

효과는 [표 3]부터 [표 5]까지에서 시차(t)=0인 경우의 추정계수로 즉시 파악할 있지만 장기효과, 즉 재방문객은 (10)식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즉, [표 6]에 의하면 청남대 재방문객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최적시차의 경우 장기적으로도 청남대 입장료의 추정계수가 단기와 마찬가지로 음(-)으로 추정되어 청남대의 입장료가 높으면 청남대 재방문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의한 추정계수는 단기효과와는 반대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전국 실질GDP가 증가하면 청남대 재방문 의도가 증가하지만 충청권 및 충북지역의 실질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하면 오히려 청남대 재방문 의도는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분석모형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초기 방문 후 1년 이내의 재방문 행태를 알아볼 수 있는 시차(t)=4의 경우와 1년 반 이내의 재방문 행태를 알아볼 수 있는 시차(t)=6 경우를 살펴보면 청남대 입장료에 의한 추정계

수와 전국 실질GDP의 추정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청남대를 재방문하는 관광객은 입장료 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방문의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청권 및 충북지역의 청남대 재방문 의도도 입장료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득수준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계수가 음(-)으로 추정되어 충청권 및 충북지역의 실질지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이로 인해 청남대 재방문 관광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 의도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경우는 입장료가 높으면 감소하고, 전국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증가하지만, 충청권 및 충북지역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청남대의 재방문 관광객은 입장료 수준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남대의 재방문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권 및 충북지역의 관광

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2]와 [그림 3]은 시차별 항목별 장단기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표 6]에서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최적시차, 시차(t)=4 및 시차(t)=6과 무관하게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영향이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시차를 고려한 경우에는 시차가 길어질수록 더 큰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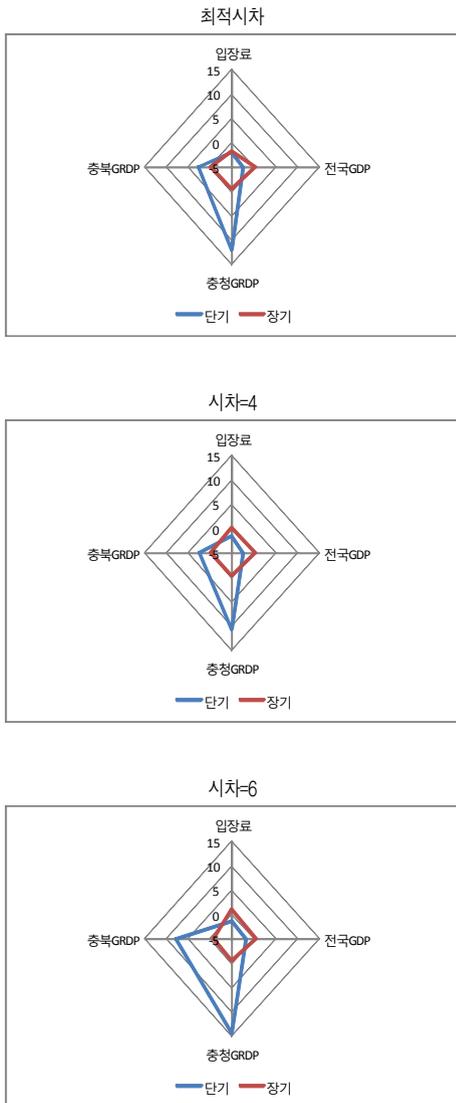


그림 2. 시차별 항목별 단기와 장기효과(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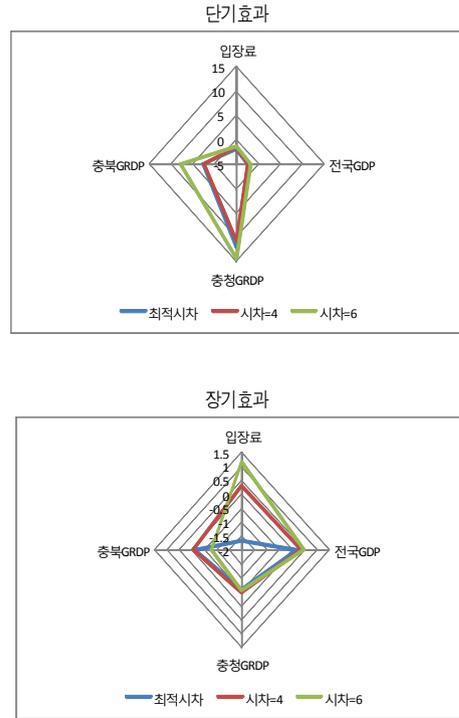


그림 3. 시차별 항목별 단기와 장기효과(II)

(11)식에 의해 장기적으로 청남대 관광객의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 즉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부터 [표 9]까지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입장료에 의한 영향은 최적시차, 시차(t)=4 및 시차(t)=6과 무관하게 초기 방문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의한 영향은 시차가 길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남대 재방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남대의 입장료의 요금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시설 확충, 이미지 제고, 서비스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잠재된 관광지 가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유사 관광지와의 연계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청남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적시차

추정방정식	장기효과	t=0	t=1	t=2	t=3
$\ln \text{CNDQ}_t = f_1[\ln \text{PR}_t]$	-1.636	-0.55	-0.08	-	-
$\ln \text{CNDQ}_t = f_2[\ln \text{NY}_t]$	0.219	0.07	0.04	0.11	-
$\ln \text{CNDQ}_t = f_3[\ln \text{CCY}_t]$	-0.581	-0.06	-0.13	-0.23	-0.17
$\ln \text{CNDQ}_t = f_4[\ln \text{CBY}_t]$	-0.085	-0.01	-0.02	-0.04	-0.03

표 8. 청남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차(t)=4

추정방정식	장기효과	t=0	t=1	t=2	t=3	t=4
$\ln \text{CNDQ}_t = f_1[\ln \text{PR}_t]$	0.313	0.12	0.04	0.03	0.05	0.07
$\ln \text{CNDQ}_t = f_2[\ln \text{NY}_t]$	0.348	0.06	0.03	0.13	0.08	0.05
$\ln \text{CNDQ}_t = f_3[\ln \text{CCY}_t]$	-0.456	-0.04	-0.08	-0.17	-0.15	-0.02
$\ln \text{CNDQ}_t = f_4[\ln \text{CBY}_t]$	-0.058	-0.01	-0.01	-0.03	-0.02	-0.01

표 9. 청남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차(t)=6

추정방정식	장기효과	t=0	t=1	t=2	t=3	t=4	t=5	t=6
$\ln \text{CNDQ}_t = f_1[\ln \text{PR}_t]$	1.163	0.24	0.18	0.11	0.18	0.33	0.01	0.11
$\ln \text{CNDQ}_t = f_2[\ln \text{NY}_t]$	0.482	0.04	0.03	0.15	0.09	0.09	0.07	0.01
$\ln \text{CNDQ}_t = f_3[\ln \text{CCY}_t]$	-0.549	-0.05	-0.09	-0.14	-0.15	-0.06	-0.03	-0.04
$\ln \text{CNDQ}_t = f_4[\ln \text{CBY}_t]$	-0.795	-0.08	-0.11	-0.15	-0.17	-0.07	-0.09	-0.12

V. 결론

관광지에 대한 재방문 의도는 관광지의 매력속성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사적인 경험이나 소득수준 등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관광지의 초기 방문자를 재방문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자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초기 관광객을 재방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의 확충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청남대는 대체성이나 보완성이 쉽지 않은 대통령 관련 시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 전환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 방문이나 단체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즉, 초기 방문 이후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급격하게 체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관광자원이다. 따라서 청남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시차변수모형을 활용하여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 행태를 입장료나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초기 관광객의 청남대 방문 요인, 즉 단기요인을 분석해 보면 청남대의 경우 입장료가 높을수록, 또는 전국 실질GDP가 높을수록 단기적으로 청남대 관광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청권과 충북지역의 실질지역내총생산이 높을수록 단기적으로 청남대의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청남대의 초기 관광객이 현행 청남대의 입장료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은 소득이 증가할 때 청남대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국을 기준할 때 청남대가 다른 관광자원과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충청권이나 충북지역의 관광객은 소득이 증가할 경우 다른 관광지에 비해 청남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남대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관

광지는 아니지만 충청권이나 충북지역의 관광객이 방문하기에는 과다한 관광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 의도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경우는 입장료가 높으면 감소하고, 전국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증가하지만, 충청권 및 충북지역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청남대의 재방문 관광객은 입장료 수준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청남대의 재방문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권 및 충북지역의 관광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남대 재방문 의도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입장료에 의한 영향은 초기 방문을 통해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의한 영향은 시차가 길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남대 재방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남대 입장료의 요금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시설 확충, 이미지 제고, 서비스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잠재된 관광지 가치의 개발이나 주변의 유사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향후의 연구과제

본 논문은 고유한 특성이 강해 초기 방문 이후 재방문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관광지인 청남대를 대상으로 다변량 통계분석인 시차변수를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재방문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청남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가 수행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청남대 관광객의 재방문 행태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임병훈, 안광호, 하재은, “관광지 개성과 속성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제15권, 제3호, pp.149-168, 2012.
- [2] 김원인, “관광지의 공간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관광매력 속성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4권, pp.71-85, 1994.
- [3] 신현호, “관광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J.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제4권, 제1호, pp.1-24, 1999.
- [4] 조태영, 서태양, “안동 하회마을 문화관광체험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7호, pp.361-370, 2009.
- [5] 조태영, “문화적 고유성이 관광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안동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3권, 제4호, pp.59-80, 2009.
- [6] 이민재, 이연주, 서원석, “지자체의 관광자원브랜드 자산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499-509, 2012.
- [7] 손병모,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객의 자각된 가치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pp.201-228.
- [8] 류시영, 엄서호, “관광만족과 재방문의도 관계의 재고찰: 변화된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1권, 제2호, pp.89-104, 2009.
- [9] 이윤섭, “관광지 매력속성의 만족과 재방문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제23권, pp.135-153, 2005.
- [10] 윤준·임근욱, “관광지 마케팅믹스와 관광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제18권, 제4호, pp.261-285, 2009.
- [11] 박영기, 윤지환, “단양지역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객의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7권, 제3호, pp.175-190, 2005.
- [12] 조장현, 권중현, 유럽관광지 매력속성의 기대수준과 만족수준 평가 및 재방문/추천과의 관계 연구, 관광연구, 제19권, 제2호, pp.19-34, 2004.
- [13] N. R. Dumitru, C. I. Negricea, and A. Slapa, “Social Tourism-A Factor in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Change,” Romanian Economic and Business Review, Vol.4, No.2, pp.89-94,

[1] 임병훈, 안광호, 하재은, “관광지 개성과 속성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제15권,

2009.

[14] M. O. Ciopi, "Marketing Plan for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Cultural and Wine Tourism in Prahova," *Bulletin*, Vol.62, No.2, pp.116-123, 2005.

[15] T. Cuccia and R. Cellini, "Is Cultural Heritage Really Important for Tourist? A Contingent Rating Study," *Applied Economics*, Vol.39, pp.261-271, 2007.

[16] E. Ruda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in Small Historical Towns,"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Conference Proceedings*, pp.577-586, 2010.

[17] M. K. Ruzzier, "Extending the Tourism Destination Image Concept into Customer-based Brand Equity for a Tourism Destination," *Economic Research*, Vol.23, No.3, pp.24-42, 2010.

[18] M. Konecnik and M. Ruzzier, "The Customer's Perspective on the Tourism Destination Br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y," *Transformations in Business and Economics*, Vol.7, No.1, pp.169-184, 2008.

[19] K. Vodeb and H. N. Rudez, "Potential Tourist Destination Development in the Istrian Countryside,"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Vol.16, No.1, pp.75-84, 2010.

[20] J. W. Van. Stadenn and L. Marais, "The Tourism Potential of Beaufort West: A Study based on Visitor Demand," *Development Southern Africa*, Vol.22, No.2, pp.233-249, 2005.

[21] B. Oertel, S. L. Thio, and T. Feil, "Benchmarking Tourism Destinations in the European Un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ourism 2001: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Montreal, Canada*, pp.234-243, 2001.

[22] D. Gorica, D. Kripa, and E. Luci, "Sustainable

Tourism-A Dynamics Method for Destination Planning," *Romanian Economic and Business Review*, Vol.5, No.2, pp.9-30, 2010.

[23]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팀

[24] R. S. Pindyck and D. L. Ru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4th. ed., McGraw-Hill, 1998.

[25] 김명직, 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2002.

[26] T. Amemiya, *Advanced Econometric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5.

저 자 소 개

이 현 재(Hyun-Jae Rhee)

정회원



- 1979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1986년 8월 : Utah State University(경제학석사)
- 1994년 5월 :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경제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제성과분석, R&D투자분석